Title: Hwalssal
No. 42, May, 1954
8327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6
Copy
MAR 31 1[illegible]5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Please return to the Korean Unit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최영근 그림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

오늘 전세계 근로자들은 위대한 쏘련인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새전쟁을 반대하며 국제긴장상태의 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쟁취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다

오늘 온세계 근로자들은 5.1절을 친선과 단결의 명절로맞는다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평화와 민주를 위하여 이날을 축하한다 인류의 영재 레닌과 쓰딸린의 교시에따라 세계에서 자본주의 철쇄를 처음으로 끊어 버린 국제 로동운동 의 첫 「돌격대」—위대한 쏘련인민들은 세계 6분지 1의 땅위에 화려한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고 있다 평화의 락원 평화의 성새인 쏘련의 위력의 장성과 거대한 성과는 인류공동의 자랑으로된다

세계 4분지 1의 인구를 가진 중국인민들은 무궁무진한 부원을 개척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첫 5개년계획의 둘째해에 들어섰으며 자랑할만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새중국은 아세아의 믿음직한 성새로 일떠섰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인민 들도 사회주의 건설을 한걸음 한걸음 높은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세계는 옛날세계가 아니며 침략자들과 전쟁방화자 들의 전횡을 용허치 않는다 엘바강으로 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이미 8억만 인구가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령도하에 주권을 자기수중에 장악하고 화려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굳세게 전진하고 있다 이나라인민들간에는 일찌기 보지못한 새로운 관계 즉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호상원조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아직 인류 최대의 불행인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며 침략과 전쟁이 위협하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한 제국주의 자들은 멸망에 직면한 자기 운명을 건잡으려고 날뛰고있다 시대는 달라졌다 영국인들까지 영국의 소 미국화를 반대한다 파리 근로자들도 파리의 워선톤 대리점화를 반대한다 이태리 농업 로동자들 이란의 유전로동자들 동남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장글속에서도 압제자들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쟁의 불길이 드높아가고있다 자본주의 각국의 모든 근로자들과 평화애호 인민들은 빵과 토지를 요구하며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여 힘차게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및 인민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는 위대한 쏘련이 서있다 인민들은 항상 쏘련의 평화정책을 지지환영하고 있으며 그에 무한히 고무되고있다 동서간의 친선과 단결은 더욱 강화되어 가고있다 이것은 바로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위대한사상의 구현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의 표현이다 올해의 5.1절을 맞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쁨은 크며 투지는 억세다

「간섭자들로부터 자기조국강토를 고수하고 인민경제의 복구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의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영웅적 인민에게 형제적 축하를 드린다」라고 쏘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1절 맞는 우리를 축하하고 있다 전후 3개년 인민경제 계획실행의 장엄한 투쟁에 궐기한 우리의 영웅적 로동자들은 침략자를 타승한 커다란 긍지감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충만 되고 있다 조선의 봄은 더욱기쁘고 희망에 차있다 조선인민의 봄은 미제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여 자기조국을 영웅적으로 수호한 승리의 봄이며 전후 3 개년 계획의 첫 출발의 봄이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들은 피로써 얻은 성과를 땀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의 우람찬 창조적 로력투쟁에 궐기하였다 우리의 3개년계획은 번영과 행복 승리와 영광을 믿음직하게 약속한다

원쑤들에 의하여 파괴된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자기조국을 일신시킬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앞에 만강의 충성심과 열성으로 전투적 5.1 절의 맹세를 다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무궁한 번영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담보인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수령의 부름에 따라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애국적 증산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선진기술과 쏘련 로동계급의 고귀한 투쟁경험을 섭취하며 창의 창발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생산문화의 수립과 엄격한 규률의 확립과 절약운동의 초소에 서 있어야 할것이다 전체인민들은 로동자들과 더부러 5.1절 을 맞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기치를 더욱 높이들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써 영광찬 우리조국의 위력강화를 위하여 자기맡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평화건설에 모든 력량을 경주하고 있는 오늘 미제와 그의 주구 리승만 역도들은 지난 날의 수치스러운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에 의연히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조국 남반부는 미제와 그의 주구 리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처참한 암흑속에 빠져들어가고있다 평화를 원치않으며 조선의 통일을 원치않는 미제는 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열린제네바 회의의 벽두부터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온갖 흉책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제의 여하한 흉책과 발광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조선인민의 완강한 의지와 일치한 지향을 꺾을수는 없다 쏘련을 위시한 세계민주진영은 조선인민의편에 튼튼히 서있다 조선인민의 립장과 주장은 확고 부동하다 조선민족은 하나이며 조선은 조선사람의 것이다 조선은 통일되여야하며 또 되고야 말것이다

(김 손)

장엄한 출발

행복의 설계도

지덕봉

가렬한 혈전을
승리로 맞이한 우리
우리 희망 대해 마냥 넓어
저 마다의 자랑으로
멀리 억년의 행복 초석이 될
3개년 인민경제 계획!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높이 추켜 올리라!

우람찬 복구건설
승리 거듭하며
일터는 달라도
부문은 달라도
그 어데에서나
노도와 같이 일떠 서서
오직 책임량 초과완수에로
불길을 소군다

전쟁의 흔적 말끔히 가시며
우리 영광의 노래 높이
하늘과 땅 울리며
웅장하게 일떠서는
공장과 기업소와 농촌들

3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위하여
억센 투쟁을 전개 한다

생명 청춘 바쳐
처절한 싸움 새워
굴할줄 모르는 사람들의 맹세!
—천백번 죽어도 몸이 가루가 되어도
미국양키를 죽엄 속에 넣고야 말리
수령! 그이가 가르키신
승리와 영광과 행복의 길로
원쑤와 싸워 승리 한
영웅조선!

이제 우리
길이 빛날 조국청사 위에
꽃다발로 수 놓은
행복의 설계도를 펼쳐 들고
거세찬 투쟁 계속한다
비대한 월가 질식 시키고
백악관의 괴물은 설계도를 볼 살으며 평화의
하늘 높이
승리의 깃발 찬란히 빛내리라!
—1954년 5월—

3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백인준 그림

보람찬 맹서

박승히 그림

—금번 채택된 3개년 인민경제 계획에 대한 법령에는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껴진 계획은 반듯이 초과완수 해야지요

고향에서

리송원

철재는 비해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깨에 날개라도 돋은듯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여 어느새 마을의 앞산 장벌 고개에 올라섰다

광활한 전야와 오붓한 동리가 보인다 뜨락또르가 달리고 행복한 생활을 개척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한 고향사람들의 활기 띤 모습들이 웅성거린다

묵모판에 딱종한 볏모는 토실 코실히 대가 굵고 싱싱히 주무렸다 훈훈한 바람이 불때 마다 방풍장 볏짚나래가 펄럭이고 모들이 초록의 무니를 지으며 하느적거린다

한쪽에서는 벌써 모내기가 시작 되였다

그리고 멀리 원쑤들의 함정골로 되였던 탑골이며 모진 전투가 벌어지였던 넓다란 벌이 눈 앞에 펼쳐지였다 올봄에 새로 관개공사를 한 개울에서는 구비쳐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뚝에서고 있는 개버들은 잎이 담뿍 피였다 새들이 가지에서 쫑쫑 날아 다니며 지절대인다

『삼례도 협동조합에 들어 모내기 하겠지!』

철재는 커다란 희망 속에서 새 생활이 창조되여 가고 있는 자기 고향마을을 바라 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어라 말할수 없는 감격이 자꾸만 가슴을 조였다

그는 배낭을 땅에 내려 놓고 잠간 고개 마루턱에 앉는다

비해전 전선으로 나갈때 어머니와 삼례가 배웅을나왔던 고개이다

철재는 전호 속에서도! 날카로운 총창으로 원쑤놈들을 게뚫어 눕히는 돌격 전에서도 항상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와 삼례의 말이 마음속에 생생히 떠 올랐다

전투 마다 그는 빛나는 공훈을 세우며 앞장 서서싸웠다

승리한 오늘 그는 휴가를 받아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다

× × ×

모내기가 방금 시작된 벌판은 웅성 거린다 열흘이나 지난해보다 일찌기 모를 옮기게 되였다

협동조합원들은 넓은 전원에서 일정한 작업반과 분조에 속하여 제가끔 마껴진 작업을 한다

이미 발가리는 뜨락또르로 하였다

선진적인 농기계도 광범히 도입하였다 그리고 백방으로 작업방법을 개선하며 선진영농방법으로 일신했다 한포기식 정성을 담아 병목식으로 심는 모는 찰랑거리는 논물에 잎사귀를 보스름이 내어밀고 갖즈니 줄을 지어간다

『흥겨운노래소리와 함께 잠시간에 큰논배미가 심어져간다

삼례는 지난해 정당 16톤을 내어 국가 표창을 받았다

재작년 봄에 적의 『쌕쌕이』가 날아들어 자기들의 집을 잿덤이로 만들고 어머니를 빼앗아간 후 부러는 더욱 입발을 뿌득 뿌득 갈며 일 했다

『미제 강도놈들의 씨뎅기를 없애다구…철재…아가…』

어머니는 원한 깊이 눈을감으면서 이렇게 유언한것이였다

삼례는 원쑤를 갚기위하여 객토작업과 퇴비반출 종자선택 발가리 모다 남먼저 했으며 선진영농법으로 육모를 했다 동이 트기와 함께 밭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줄곳 일하여 지난해에는 정당 16톤을 걷우고야말았었나

삼례는 올해에는 협동조합에 들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더욱 힘차게 일하고 있다

삼례는—이른봄 협동조합에서 묵모를 파종한후 해풍이 모질게 불어오고 기후가 랭하여 거반 모가 실패하게 되였을 때 마을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종전의 경험에 비처 사방에 방풍장을 치고 볏집나래를 두텁게 2중으로 덮어줬다 해풍이 쑹기고 비가 올때에는 그냥 덮어주고 개인때에는 벗겨 줌으로써 모판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적극 힘썼다 그리하여 협동조합 묵모판은 하나도 병충에 걸리지 않고 벌써 모내기를 시작하게 되였었다

『저기 오는 인민군대가 누굴까!』

『글세요…』

한배미의 모를 다내고 허리를 편 안악네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 받았다

인민군대는 점점 가까히 걸어온다 가슴에는 훈장이 번쩍인다

『저게 누구야! 아니! 철재로구나!』

『옳아 틀림없어!』

『삼례 새서방이야!』

이쪽 저쪽에서 반가워 손뼉을 치며말한다

삼례는 철재가 웃음을 디우고 자기앞으로 닥아오자 너무도 감격에차 한자리에서 어쩔줄을 모른다

철재는 성큼 성큼 걸어와 삼례의 손을 덥석 쥔다

× × ×

곧 점심시간이 되여 철재와 삼례는 비둘 없이 꼭 쪽으로 나란히 걸어 집에 들어왔다

『얼마나 수고했소!』

철재는 행복에 겨운 눈초리로 삼례의 얼굴을 들여다 보며 말 한다

『네!』

철재와 삼례는 서로 가슴에 빛나는 훈장의 략장을본다

긴말이 필요 없었다!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기쁠까……』

삼례의 눈물쉬인 말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잠시 머리를 숙인다

『미제 강도놈들의 씨뎅기를 없애다구……

철재……아가……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시고 그만…』

삼례는 말을 삼키고 뜨거워진 눈 시울을 닦는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원쑤를 갚았으며 또 앞으로도 갚고야 말테이요 당신도……』

『네 잘 알고 있어요!』

철재와 삼례는 다시금 굳게 결의를 다지였다

점심후의 모내기는 다시 시작 되였다 철재도 웃통을 벗어 제치고 삼례와 같이 논에 나왔다 여러시 합친 협동로력의기쁨속에서 넓은 논배미는 순식간에 푸루러 간다 5월의 훈훈한 바람은 철재와 삼례와 조합원들의 옷자락과 머리 위를 스쳐가고 스쳐오며 그들을 그윽한 행복감에 잠기게 한다

리 송 원

로동자들의 즐거운 생활

—훌륭한 구락부로 되어가는데요
그렇은요! 전체동무들의 즐거운 휴식처로 될것입니다

—일어선 우대를 받고 기술까지 배워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선진 기술을 열성것 배워야지!

—참말 우리 생활은 날로 향상되는 군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도 더욱 높은 증산 성과를 올립시다

—우리아이는 채충도 퍽 늘고……탁아소에만 오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언제든지 마음 놓고 작업하세요!

현 광 수 그림

닥치는 대로 일하는 자들!

오늘도 염주군 인민위원회 상업부 일군들은 할일이 없는듯이 권태증을 느껴가며 책상에 마주앉고 있다

상업부장은 머리를 싸매고 짧은「연구」에 잠겼다

드디어『묘안』을 자아낸 상업부장은 즉시 부회의를 열고「일대 훈시」를 내렸다

『우리들은 하부실정에 밝아야하며 또한 광범한 의견을 접수하여 사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각소비조합 상점 책임자들에게 상점들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들을 조사보고 하도록 긴급지시를 띄워야 하겠습니다』

상업부장의「훈시」대로 지시문은 각상점 책임자들에게 발송 되었다

몇일후 상점들에서는『절실히 필요한 품종』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상점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고급화장품 노—트 고급수산물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상업부장은 감탄하듯이 무릎을 툭 치며『과연 소비조합 사업이 형식 주의 였어!

하부실정은 모르고 여지까지 농기구 농기구들만 하고 있었으니… 농민들에게 농기구는 의례 있을것이니까…

농민들의 향상된 생활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고급화장품 노—트 고급수산물 들을 농촌상점에 보내지 않었으니…』

이렇게 상업부장은 한 상점의 보고를 접수하고 전체 상점에 고급 화장품을 배정하도록 부원들에게 까이르며 속속『대책』을 취하여 집행하게끔 조직하였다

그후도 역시 상업부 일군들은 일이한가 하였다

별로 할일이 없는 상업부장 동무는 자진 농업부 사업을 협조하는데 나섰고 식수 및 춘기 파종사업의 로정 지도원으로서 리에 나가버렸다

사무실에는 부부장이 남게되였다

때 마침 4월 7일 도인민위원회로부터 도량형기 제1종 단속사업을 실시할데 대한 지시문이 시달되였다

도로부터 제시된 계획에 의하면 염주군은 4월 10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여 있었다

그러나 상업부 부부장은『창발성』을 내여 시일을 단축하여 4월8일부터 실시하라고 각리에 지시하였다

도로부터 파견된 도량형기 검사원은 각 군별로되는 사업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면서 염주군에는 계획대로 10일에야 도착하였다

그러고 보니 상업부에서는 재차 시일 변경 지시를 내노라고 많은 수고를 하게되였다

이렇게 염주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에서는 닥치는대로 사업하며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음으로하여 군내에 있어서 상업망의 조치 상품배정사업 지방특산물의 수매등이 상품 류통 사업이 망망 진행되고 있다

농촌에 필요한 상품이 일부상점에 체화되여 있는가하면 일부상점에는 배정도 되여 있지 않으며 특히 부근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소금이 품절되는 기괴한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 × ×

염주군 인민위원회 상업부 일군들이여! 군내 상품 류통사업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통제하라 상업망의 옳은 조치 적절한 상품배정 지방특산물의 활발한 수매 고객에 대한 봉사성 및 국가적 수익성의 제고등을 보장하라!

(고 봉)

모기다리에 각반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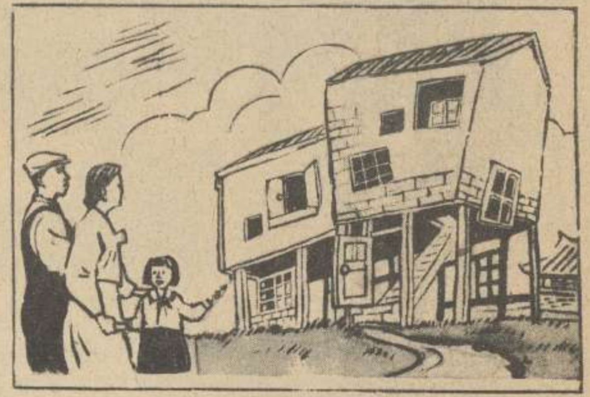
경공업성 방직기계공업 관리국에서는 생산기업소의 공장설비와 능력도 타산 하지않고 도저히 기한내에 생산하지 못할 많은 량의 방직 기계 부속품을 생산완료하라고 덮어놓고 앉아서 지시만 내려 보내고 있다

—모기다리에 각반을 치라니 코막고 답답한 일이야!
—한번이라도 이 공장을 똑똑히 보았으면 그럴수 없겠는데!

시급히 시정하라

—베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라야 선로를 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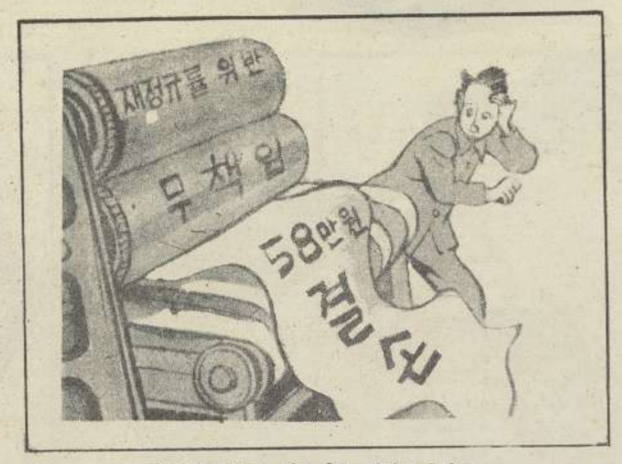
일부 공장에서는 아직도 생산 실적이 떨어져야 눈때서 돌격식으로 사업한다



함북도 건설위원회는 설계도 도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불량 건물 들을 만드는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박승히 그림

유일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라



김철명 동무가 지도하는 제지공장에서는 자금운영을 되는대로 함으로서 1953년도에 58만원이나 국가에 손실을 주었다

교 양 부 족

인민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 식수하여 놓은 가로수를 꺾는 「신사」여! 당신은 조국이 푸른락원으로 되는것을 원하지 않는가?

평양제6중학교에서

평양 제6중학교내 일부교원들은 교수에서 락후한 필기전달식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어는 부정확한 교수까지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적 제고에 지장을 주고 있다 결과 국어과에 있어서 다수의 락제 생을내고있다

책 임 전 가

—그래 합격품은 겨우 요거야…?!
—그야 나의책임이 않이지요………
요것도 나의「창의성」을 발휘한 덕택이라우……

승호리 세멘트 공장 물리 시험책임자 최동무는 선진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려는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의들을 묵살하였다

척병에 걸린 낡은 고집쟁이

—제말만 말이라니 딴 사람이야 몸이 있어야 말을 하지
—글쎄 그쓸데 없는 고집을 비판 방맹이로 깨트려 버려야지

원 광 수 그림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하여 앞으로!

—무한한 행복…무한한 번 영……
—국가계획은 균형적으로 지표별로 질적으로 실천해야지요

최한전 그림

하늘 높이 5월의 깃발 휘날리고 전망 양양한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무팔에 솟구치는 힘 모다 책임량완수에로 힘차게 나아가자!

백인균 그림

인민들의 대표 대의원들은 최고 인민회의 제7차회의에서 인민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각각 자기직장으로 돌아갔다

5월의 기발을 날리며

김희도

팔뚝들도 드높이
어깨를 겯고
우리 이 거리를 걷는다
하나로 뭉친 세계 근로자들의 힘
강철의 굳세인 마음을 담은
5월의 깃발 날리며

깃발이여
방선에 선 전사의 마음에도
지하 천척 갱도속에서도
항시 가슴 벅차게만 하여주던
5월이여

너로 하여 가슴 더욱 뜨겁고
너로 하여 더욱 힘을 길러왔거니
오늘은 증산의 불꽃 날리며
굳세인 힘을 시위한다

내가 사랑하는 평양
가로수 향기롭던 쓰탈린 거리
공장마다 치솟은 굴뚝들은
이리 보다 모질 원쑤의 말굽으로 하여
아픈 상처를 입었다

구비쳐 흐르는 강물 웃음 띄우며
그이와 더브러 다정한 다리
다리도 내려 앉고
앞날을 노래하던
모란봉 진달래도 송이 채 흐터지고…

그러기에
이 나라 늠늠한 젊은이들은
용광로 보다 뜨거운 불길을 안고
멸적의 기세 높이 솟
원쑤를 부실 총창을 고루지 않았더냐

산이면 언덕마다
마을이면 집마다에
5월의 기치 높이
온 누리 형제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왔거늘
우리 어찌 승리하지 못했으랴

오늘 이 땅에 다시
따사로운 봄이 깃들이
어름 풀린 강물이 흘러넘치고
복구건설의 노래 우렁찬
5월의 깃발 날리는데

더욱 뜨겁고
더욱 즐거찬
수억만 형제들의 성원을 담아
다리가 이어지고
굴뚝이 이러서고
불꽃이 섬광처럼 번쩍이는
거리를 걸으며

우리 청춘이 꽃필
휘황찬 앞날
아람찬 래일 맑은 생세로 끓는
우리 단결된 힘을 시위한다
발걸음도 도도히
5월의 깃발 날리며

(1954. 5. 1)

전국 각지에서는 국영 및 소비조합상점망이 날로 확장되여 가고 있다 지난 5월 1일에는 평양 제1및 제2국영 백화점이 전전의 5배나 되는 큰규모로써 시민들의 환영속에 개점되였다

천대받는 써-클

로전부장에게 돌연히 불리운 무용써클 지도원 김한순 동무는 무슨 곡절인가 의아 하지않을수 없었다

『로전부장은 위엄을 차리면서 말을 꺼내였다

『우리부에서는 녀성 로력을 축소하게 되였소 동무는 오랜경험을 가졌지만 할수없이 다른부에 가야하겠소

『그러면 어느부에 가야 합니까』 김한순동무는 물었다 『바루 비료 직장으로 가면되오 로동부장과 이미 합의가 되였으니까』 김한순동무는 이리하여 비료 직장장 서상인동무 앞에 나타나 첫 인사를 하게되었다

그러나 서상인동무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얼굴로 말을 꺼내였다

『동무는 써클 지도자라지요?』

『비 그렇습니다』

『써클지도자는 무엇을하오?』

계속하여 이렇게 묻는 직장장의 말에 김한순 동무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 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두 춤이니 노래니 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소 아무리 하여도 그것이 생산하구 무슨 관계가 있소… 우리 직장은 일이 밀려서 동무를 받기가 좀 곤난하니 다른 직장으로 가 보는것이 어떻소』 모든것이 여기에서 출발하였구나— 김한순동무는 자기가 조동하게된 전말을 똑똑히 알았다

제관직장 로동자들이 마당에 원을 치고 모여 노래를 부르며 한창 흥에 겨웁다

그 가운데서 엄형석 동무가 춤을 지도하고있다

『직장장동무 이거 웬일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난장판이 되였소?』

자기 앞에 벌어진 광경에 놀란 공무부장 원태호동무는 더 말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휴식 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 민주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락부는 없고 민주선전실은 폐방으로 되고 있으니 부득히 여기에 모였지요』

몇날이 못가서 모범로동자이며 써클지도자인 엄형석동무는 다른부로 조동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도 엄형석동무는 공무부 산하에서 6사나 일터를 뗌도리쳐 다니지 않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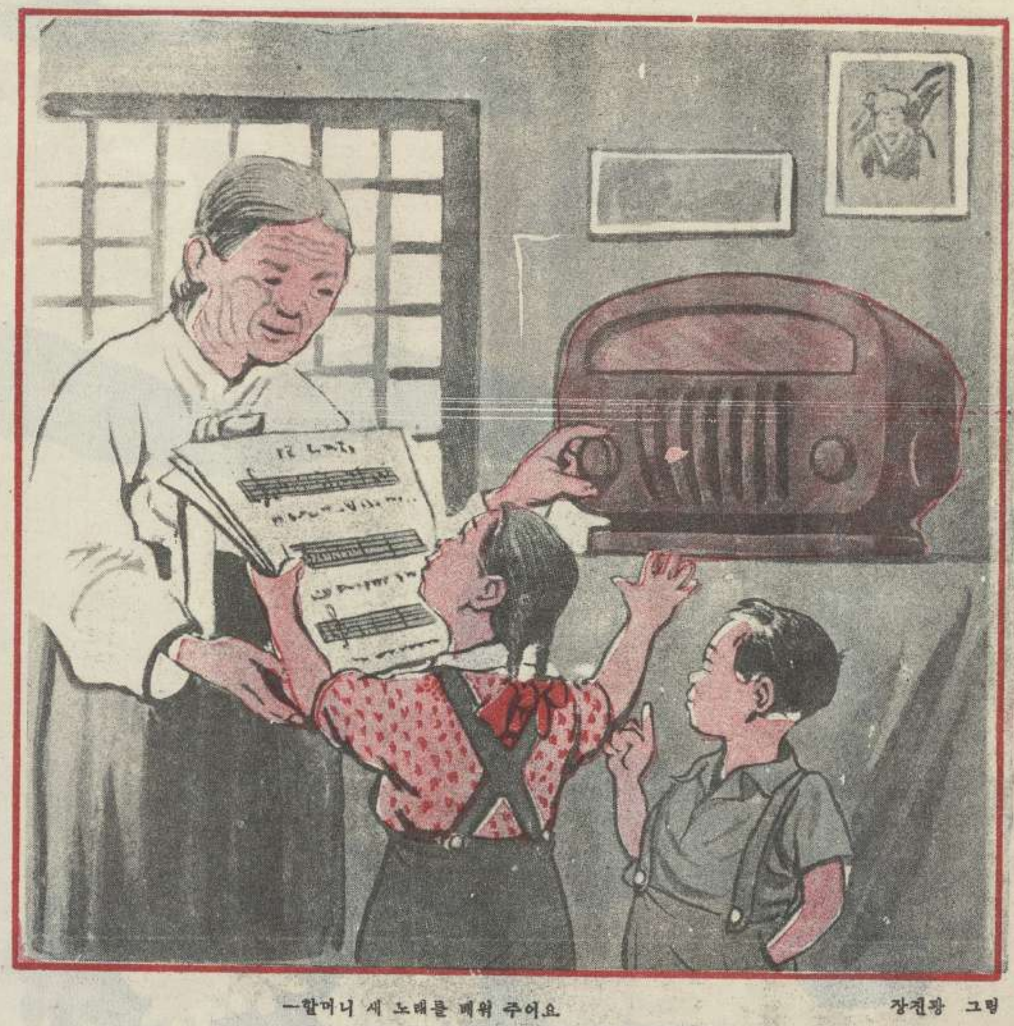
이것은 직맹문화부장 양창렬동무가 사업하고 있는 공장에서 최근에 있는 일이다

공장 지도 일군들로 부터 군중문화 사업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개의 구락부도 없으며 얼마아니 되는 민주선전실 마저도 폐방으로 되어있다

이공장의 일부 지도 일군들의 머리속에서는 로동자들속에서 군중문화 사업을 전개하여 그들의 생기 발발한 증산 의욕을 북돋아 줄데 대한 고려가 쓸데 없는 『공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시급히 군중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짐과 아울러 적극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시정퇴치 하라 (윤 원 길)

어린이 시간



—할머니 새 노래를 배워 주어요

—얘야 내가 새노래를 아냐 라디오를 크러줄테니 어서 배워라

할머니 라디오에서는 요사히 새노래가 아니나와요

장진광 그림

형식적인 직관물 공작

신의주 고무공장 구락부 벽에는 되는 대로 쓴 표어들이 란잡하게 부쳐있다 이것 역시 직관물 공작에서의 형식주의의 표현의 하나이다

—지배인 동무 직관물 공작은 문제 없습니다 성과 있게 진행 되고 있으니……

—직맹위원장 동무 그런데 표어를 부치면 이렇게 물걸하게 되는법인지요?

무책임한 사업작풍

장진광 그림

청진 수산 사업소에서는 타망, 각망, 고뭉어 정치망들의 투망기일을 연 95일이나 지연시킴으로써 응당히 잡아 낼수있는 780여톤의 어물을 잡지못하였다 또한 자재취급에 있어서 초보적인 장부정리도 하지 않는데서 전쟁기간중 소개하였던 허다한 기계, 공기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분실 되였는지 또는 파괴되였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큰일났소 투망기일이 자꾸 지연되는데 동무들은 무얼하우?

—소장동무 그것도 그렇지만 어구가 상당히 없어지기는 했는데 분실당하였는지 파괴 되었는지 또는 그 숫자가얼만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터문이없는 간소화

사업을 간소화 한다고하여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와 책임까지 「간소화」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평양 방직공장에 뎁정 정리부 위생지도원 리기석동무는 사업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것마저도 「간소화」하고 있다 행정지도부에서 위생시설에대한 재반대책과 지시는 어디다가 집어치웠는지

그가 틀을 차리고 앉은 위생실에는 약 한알이 없으며 「구급약」이 라고 딱지를 붙인 약상자가 입을 벌리고 가로 누어 「초기증」에 걸려 있다

2.000명이나 들어있는 합숙에는 체온계가 단 하나 뿐이다 저녁이 되면 가끔 체온계 「쟁탈전」이 벌러진다

『제발 오늘은 우리가 좀 쓰자요』

『아니야 우리방에는 급한 환자가 생겼어』한편 환자들과 종업원들은 위생실 문어구에서 약을 요구한다

『마큐롬을 좀 발라 주세요』

『아스피링이 없을까요?』

그때마다 위생원들의 마음은 괴로웠다 위생원들은 위생지도원에게 물었다

『빈손으로 어떻게 위생사업을 계속하란 말이예요』

『약이 없으면 할수 있소?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보내구려 공연히 사업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요』 리기석동무의 무책임한 대답이 였다

하루는 위생원이 또 말하였다

『지도원동무는 목욕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여러동무들이 쥐새끼들의 무도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을 넣구려』 리기석동무의 대답은 역시 간단 하였다

그의 「간단」한 대답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합숙원들의 침구는 1.4분기 전 기간을 두고 한번도 세탁되지 못하였으며 일광소독도 하지 못하였다

위생실 담벽에 붙인 일과표에는 아침 저녁 청소를 실시할것, 매주 일회식 대청소를 실시할것등 조항들이 그럴듯하게 써어있었다…

상부로 부터 엄격한 지적이 내렸다

그러나 리기석동무는 뒤에 돌아서서 중얼거리기를 『안되였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 있게하면 될 것 아닌가 문제는 간단한데 그래…』

하고 역시 생각하는데 곤쳤다

평양방직공장에 위생실비용이 없는가? 아니다 인민약국에 약품이 없는가? 아니다 병집은 리기석동무의 「엉터리없는간소화」 바람에 기인 되고있다

리기석동무는 팔다리까지 잘라서 몸을 「간소화」할 심사가 아니라면 하로 바삐 「위생지도원」이라는 직명을 다시 똑바로 달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성 있고 신중한 연구와 대책을 세우라

(장 철 순)

백문한의 창작생활

백인균 그림

6년동안이나 수풍에서 「연구중」.「구상중」「집필중」「탈고중」이라고 하여온 백문환 동무! 언제면 정말 탈고 하시겠는지요?

락후한 생산실적은 무엇에 기인되는가!

나경히 지배인동무는 지난 1월 하순에 내려온 중공업성 금속 관리국장의 지시를 대략 한번 훑어 보고는 책상설합속에 넣은채로 2.3개월이 넘어도 다시는 꺼내 볼 생각 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쥐란놈이 설합속에 기여들어 서류들을 쏠아 놓아 그만 그 지시문은 군데 군데 글자까지 떨어지게 하여 도무지 알아 보기 조차 힘들게 되고 말았다 또한 동공장 모간과장 김북윤동무의 책상속에는 중공업상 명령 제158호를 비롯하여 10여건의 명령 지시가 석달째나 그냥 묵어나고 있다

이 공장 일부 지도일군들은 이렇게 상부의 명령 지시는 연구도 하지않고 소홀히 취급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대로 지배인 지시를 자조 하부에 란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배인이 내려보내는 지시들에는 공장의 실제정형과 거리가 먼 것이 많다 이렇고 보니 이 공장의 기본 생산품인 전극은 3월이다 지나도록 전혀 생산되지 못하였으며 생산 하기 쉬운 뻥—에따는 창고속에 가득히 체화되도록 만들어 자금 회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전극공장이 복구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전극을 생산한단 말인가?』하고 변명할 뿐이였다 그러나 자재창고에는 전쟁전에 성형한 전극이 쌓여 있으며 간단한 로며만 들이면 전극은 능히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리규봉동무가 지도하는 기업소에서는 이 공장에 대하여 전극을 요구하다 못해서 지난 1월에는 전쟁전에 소성만 해 놓은 전극을 그대로 실어 갔었다

이렇게 소성 전극을 판매하고도 그들은 마치 자체 생산품 처럼 계산하여 1월분 생산 실적 32,6%을 55,6%로 허위보고 하는 철면피한 공명심만은 가지고 있다

이 공장 일부 지도일군들은 법적 의무로되는 복구건설의 국가과제를 반듯이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무책임성과 태공의 허물을 시급히 청산하고 사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상부의 지시를 제때에 철저히 연구하며 조직성 있고 질서 있고 규률있게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석 봉)

강연사업을 개선 강화하라!

—또 책읽듯이 내려 읽는구나!

—준비없이 나섰으니 그럴수 밖께

—야하! 다 가고 말었네

—이럴줄 알았으면 미리통제라도 잡아둘걸

리 영 순 그림

덜레스와「새끼 강아지들」

덜레스는 제네바 회의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도망쳤다

그는 제네바 회의에서도「힘의 정책」으로 위협하며 조선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며 인도지나에서의 전쟁확대와 동남아세아에서의「집단적 안전동맹」의 조작을 책동하다가「미국외교상 미증유의 참패」를 당하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고립되였었다 그리하여 덜레스는 인류를 죽엄속에 몰아넣으며 전쟁의 불작란을 할려는 자기들의 시꺼먼 흉계가 평화를 념원하는 인민들 앞에 여지없이 파탄되자 그야말로「도독개 숨에 오른다」는 격으로 자기들의 소굴로 도망칠수 밖에 없었다

덜레스는 제네바 회의에서 취급되는 조선 문제와 인도지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더욱 확장하며 아세아에서 식민지 통치자들의 새로운 쇠펴을 조작할려는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나타났었다

즉 아세아에서의 긴장상태를 조장하며 전쟁을 도발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며 또한 동남 아세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해방 운동을 탄압함과 아울러 날로 번영 륭성하는 중화 인민공화국을 침범하려는 엄토당토 않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남일 외무상의『조선의 평화적 통일방안』과 중화 인민공화국 주은래 외교부장, 월남 민주공화국 수석대표 범문동 동지의 선설 그리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과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와 제 인민간의 평화와 친선을 옹호하는 쏘련 몰로또브 외무상의 연설은「힘의 정책」을 떠버리는 놈들의 머리위에 폭탄처럼 쏟아졌다

× × ×

덜레스가 도망친후 미 국무차관 스미스가 새끼강아지로 제네바에나타났다

스미스는『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네바에 왔다』만일 인도지나 문제가 자기들에게 유리 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미국은 아세아에서 새로운 방위동맹을 창설할것』이라고 허무맹랑하게 떠버리였다

또한 위신톤의 지령에 의하여 날뛰고 있는 허수아비들은 그대로 상전에게서 배운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짖어대였다

이 강아지 새끼들 중에는 남조선 괴뢰정부대표 변영태 놈도 끼어 껭껭 거리였다

변영태는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열성」이 지극하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 하기에 입에 침이 말아 떨비 었다 그는 현재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오히려 부족하니 좀더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달라고 짖어댔다

비률빈대표 가르시아도 미국의 자령을 충실히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남에게 떨어지지 않아 우리측의「평화적 통일방안」이 마치 베르린 4렬강 외상회의에서 독일문제에 대하여 쏘련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과 꼭 같다고 엉터리 없는 사실질을 들고 나온 상게 덜레스의 말을 앵무새 처럼 그대로 옮겨 놓기까지 하였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벨기 뉴질랜드 등 미국딸라에 매여 달려 연명하는 나라의 대표들인 새끼 강아지들이 짖어댔다

× × ×

그러나 어찌 하랴!

어미개 덜레스는 이미 세계여론의 규탄을 받고 제네바에서 도망쳤다 강아지 새끼들인 허수아비들이 나송궁전의 연단을 미국 침략을 엄폐하기 위한 허구날조의 연설장으로 리용하며 짖어대고 있으나 덜레스의 개코망신을 당한 그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출할 뿐이다

호전 정책은 세계 인민들로 부터 여지없이 파탄되고야 말 것이다 (원 철)

알길 뻔한 „힘의정책"

최영근 그림

미제는 발광적으로 전쟁을 선동하며 입버릇 처럼 항상「힘의정책」을떠들면서 국제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전세계 도처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서는 평화 애호인민들의 강력한 위력앞에 날로 침략세력은 약화되여가고 있으며 그 내부모순과 분열은 더욱 심각화 되여 가고 있다

당황망조한 월가 상인

장진광 그림

—실업자들이 직업을 달라고 일어섰으니 모조리 휘몰아 치우라구!
—이사람 나날이 늘어가는 실업자들을 어떻게 휘모라친단 말인가?

원쑤들의 흉모를 폭로분쇄하자!

죽엄의 땅 암흑의 남조선—거리 거리에는 무수한 전재고아들이 먹을것이 없어 방황하며 처자들의 손목을 이끌고 유리걸식을 하는 전재민들이 눈앞을 괴롭힌다

악질경관들과 양깨들이 싸 다니며 사람들이 모여 서기만 하면『까따 까따』하고 지절 대인다

김영이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의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개자식들! 야만의 새끼들』

『저것들이 몇날이나 저멸작정인가…』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침 이때 였다

숨이 턱에 닿서 다름질 치다시피 걸어오는 수철이를 맞났다

『수철! 어데로 그리 급히?』

『김영인가 어데를 가나?』

『갈곳이야 어데 있겠나만 그저 발닿는 곳으로!』

붙이서 거름을 같이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이 요지음 소식 좀 들었나?』

『무슨소식?』

『제네바회의에서 덜레스란놈이 개코 망신을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어 월가의 졸개들은 남일 외무상이 제출한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희망인 조선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로골적으로 방해할려고 날뛰고 있어』

『어떤것들을?』

『영이! 전쟁 미치광이인 추악한원쑤 "밴프리트" 란놈이 국방군증강 계획을 가지고 5월6일 이곳에 나타났다네

『개자식들! 그래 어쩔작정인가?』

『그뿐이 겠나? 5월5일에는 미 예비군 사령관 "리차드" 란놈이 아이젠하워의 특별서한을 가지고왔고 국방군 "련합참모부장" 리형근이란놈이 미 제5군 사령관 "애더슨"의 초출을 받아 5월7일 서울을 떠났다네』

그들은 미국의 호전분자들이 빈잡하게 최근 남조선에 들락날락 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들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과거를 상기해 보지 않을수 없었다

『죽일놈들! 덜레스란놈이 3·8선에 진달래꽃 구경 다닌다고 들락 날락 하다가 기어코 조선에 전쟁의 불길을 질러드니 지금에 와서는 "밴프리트" 다 "리차드" 다 하고 싸다니면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끝까지 방해할작정인가』

김영이와 수철은 미제와 리승만 역적들의 추악한 흉모에 대하여 격분과 증오에 몸떨었다

『만일 네놈들이 또다시 우리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불착한짓을 한다면 네놈들이 가져온 무기에 네놈들이 맞아 죽을줄 알아라—』

『그렇지 당연한 일이야 조선은 꼭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해! 남일 외무상의 제출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적극 선전하며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음모를 폭로 하는데 나서세! 응!』

『그래 월가의 졸개들과 용감히 싸우자!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할려는 원쑤들의 어리석은 짓들을 규탄 하세』

장경환

덜레스의 삼십륙계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기대속에서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남일 외무상은 조선인민의 일관된 주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하고 정당한 이 방안은 쏘련수석대표 몰로또브외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주은래 외교부장의 전적 지지를 받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아이구! 모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외치니……
귀를 틀어 막아 야지……
고막이 찢어질것 같애……
이제는 어지러워 쓰러질지경이야……뛰어라 뛰여

제네바 회의에서 미국대표 덜레스와 리승만의 대표 변영태는 남조선에서의 미국군대의 철거를 반대하고 미군이 장기 주둔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파탄시키며 국제긴장 상태를 계속유지 할려고 날뛰고 있는 그들의흉책은 파탄되고야 말것이다

미제의 스피—카

박승히 그림

덜레스—똑똑히 보구 멀지말구 잘말해
번영태—한자도 틀림없이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각하 아무리 떠들어도 인기가 없으니
덜레스…………

상전미제 없이는 살수없는 리승만

리승만—그렇게 탄압했는데 또 저렇게
미군—렴려마오! 미국군대만 가지않으면 당신 안심 할수 있소!

백인균 그림

리승만의『자유선거』

장진광 그림

리승만……이자식아, 총련놈에게 덤벼들테야……
반대파……개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아느냐!

미제와 리승만의 서투른 곡예

미제와 그의 충직한 졸개 리승만은 아세아에서의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는 모험을 발광적으로 추구하면서 점점더 자조 보채대고 있다

이제는 조선전쟁에서 이미허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힘의 정책』을 추구 할려는 그들의 흉책을 숨기지 않고있다

베를린 회의에서 조선문제와 인도지나 전쟁의 평화적 조정을 예견한 제네바 회의 소집이 결정된 이래 미국의 지배층들은 더욱더 발광적인 전쟁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리승만은 미제의 전쟁정책에 장단을 맞추어 소위 "북진" 을 또다시 떠들면서『련합국과 더부러 또는 련합국의 협조없이 정전선을 넘어 공격하도록 어느때 명령 할는지 모른다』고 주제넘게 떠버리고 있다

또한 악명높은 전쟁상인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미국에서 리승만군대를 20개 사단으로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군수 기자재 를 공급하려면『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으니만큼 미군을 소위 철수하고 그의 기재를 남겨 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떠버리였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이 『획기적, 사건』이라고 떠들어대는 미군 2개사단의『철수』는 그들이 조작한 한개의 졸렬한 연극이라는 것을 톡톡히 폭로 하였다

즉 미제 침략자들은 지난 3월14일 1.121명의 미군병사에게 제45사단의 깃발을 들려 경인가도를 행진시키는 신파를 꾸미고 이것을 미군 제45사단의 "철수" 라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미군 제8군 사령부 행정 참모부장 존 모엔의 말에 의하면 제45사단병사 1만7천여명은 다른 남조선 주둔 미군 부대에게 전속시켰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미제의 또 하나의 희극을 알고있다 미제는 제네바 회의가 소집 되는 바로 그날에 동남 아세아통지에서 미국 괴뢰들을 남조선에 몰아다가『반공』구호를 염불처럼외이게 하며 함정에 빠진 돼지 목소리를 지르게하는 등으로 제네바회의에서 울려나오는 평화의 목소리에 잡음을 끼여보려고 가진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아의 낡은 인간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새로운 아세아에 감히 대립 시켜 보려는 어리석은 책략은 당연히 아세아 인민들의 반대와 분격에 부닥쳤다 심지어 초청받은 반동괴뢰 정부들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요런 저런 핑게를 내걸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지시에 움지기는 리승만이가 제물에 놀란 늙은 삽살개처럼『반공!』『반공!』하고 발광적으로 짖어댔으나 나서는 자는 많지 못했다

미국 전쟁 상인들의 졸렬한 "반공" 희극이 중도에서 막을 닫고 말았다는 것은 이 희극 작성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는 평화스러운 생활보다도 유혈의 전쟁을 원한다 그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도 무력 침략에 관심을 두며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의 완화보다도 그의 지속 및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미국 전쟁 상인들은 분명히 히틀러나 뭇쏘리니나 도죠도 감히 하지 못한 새로운 술법을 찾는데 고심 골몰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조선 정전을 파괴하고 조선에서 전쟁을 다시 도발하려는 미제의 일관된 립장으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쟁 상인들은 이런 종류의 소동이 결코 조선인민을 털끝만치도 놀래우지도 못할것이며 제네바로 부터의 평화의 목소리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평화를 념원하고 있으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 되여야 한다는 공고한 신념으로 일관되여 있다

전쟁 재발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어떠한 발악도 조선 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평화 인민들의 강력한 력량앞에 반드시 분쇄되고야 말것이다

(리 봉 규)

미제의 발 닫는곳마다 에서

리 영 춘 그림

—에이 더는 못참겠다!
너희들의 목숨이 길줄아냐!

—개자식들 더는 못하겠다

미국풍선에 탄 남조선 물가

박승히 그림

—이자식 올라가라 그래야 말라 수지 맞는다
—올라 갑니다 주인님 더 부시요 더! 더!

죽엄의 땅 남조선에서

—가! 건물이 없어 큰일났군 학교 영화관 모조리 감옥으로써도 모자라니 이제 또잡아 오는 놈들은 엇다가 가둔담

장진광 그림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발행소 활살 (시사만화잡지) 사 인쇄 1954 5 20
책임주필 장진광 인쇄소 평양특별시 국립종합 인쇄소 발행 1954 5 26
총배포처 체신성 출판물관리국 ㄱ…50314(정가90원)